

■ 정책동향

금년부터 정부조달시장 개방

금년부터 우리나라도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게 돼 중앙정부 지방정부 23개 정부투자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 서비스, 건설서비스를 구매할 때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물품 및 서비스의 경우 13만 SDR

(약 1억4천3백만원, 1SDR은 1천1백원), 건설서비스는 5백만 SDR(약 55억원)이상일 경우 개방해야 한다.

이 협정은 지난해 1월부터 발효됐으나 우리의 경우 신규가입국임이 감안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부터 적용토록 했다.

■ 우리나라 양허 범위

(단위 : 만 SDR)

구 분	양 허 기 관	양 허 범 위
정 부 (중앙기관)	42개 중앙 행정기관 (안기부,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비기위 제외)	물품, 서비스 : 13(약 1억5천만원) 건설 : 500(약 55억원)
지 자 체 (지방기관)	서울시 등 6개시와 9개도	물품, 서비스 : 20(2억2천만원) 건설 : 1500만
기 타 기 관 (정부투자기관)	한전, 한국통신등 23개 정부투자기관(한국통신, 한전 일부품목 제외)	물품 : 45(약 5억) 건설 : 1500만(약 165억원)

* 1 SDR은 약 1,100원(약 US\$ 1.4)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자금 융자제도 개선

통상산업부는 국제무역수지 적자의 근본적인 해소 및 산업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에 대하여 '97년도부터 개별품목당 지원한도를 크게 늘

리는 한편,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기술개발지원 융자사업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 '9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면
 - 현행 과제별 지원한도를 30억원까지 확대 (시제품 : 20억원, 첨단 : 10억원의 구분도 없앴)하여 개발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형 기계류등 핵심자본재 및 첨단기술 제품의 국내 개발을 실효성 있게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코자 하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지원강화를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한 중소기업 및 R & D투자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 최근 제품의 life-cycle 단축추세에 맞추어 시제품개발기간을 36개월 이내로 제한하되,

- 과제의 특성상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기술개발 risk가 큰 장기 개발과제(36개월 이상)에 대해서는 보다 유리한 공업기반 기술개발자금(출연금)을 우선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성공하였을 경우 용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함으로써 기술개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총 개발비가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과제로서 2-3년의 개발기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소요자금을 일시에 지원하지 않고 연도별로 분할지원(당해년도. 소요자금은 전액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도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輸入先다변화 품목 공고

통상산업부는 지난해 6월에 마련된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영방침에 따라 7월에 10개 품목을 해제한데 이어 금년 1월 해제대상품목 25개를 선정하고 수입선다변화 공고를 개정,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선 다변화품목 수는 현재 152개에서 1월부터 127개 품목으로 줄어들게 된다.

통산부는 이번 해제대상품목 선정과 관련, 장기간 다변화품목으로 지정돼 경쟁력이 어느정도 확보되었거나 현재 국내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 또는

일본으로부터 예외수입이 많거나 국내시장 규모가 작아 해제시 對日수입증가가 미미한 품목 등 다변화품목으로 지정할 실효성이 적은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완전해제 대상품목(전기관련)

HS	품 명
8502.13.1010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기 400kW-750KVA

■ 부분해제(전기관련)

현행		변경	
HS	품명	HS	품명
8508.10.0000	각종의 전기드릴 다만, 착암기 및 합마드릴은 제외	좌동	각종의 전기드릴 다만, 착암기, 합마드릴 및 <u>드릴 구경 25mm 이상이며 소비전력 1000W 이상의 것</u> 제외
8508.80.0000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다만, 대패, 그루버, 정타기, 합마, 고주파 전동공구 및 충전식 드릴은 제외	좌동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다만, 대패, 그루버, 정타기, 합마, 고주파 전동공구, 충전식드릴 및 <u>임팩트렌치</u> 는 제외

'97년 關稅減免대상 물품 지정

재정경제원은 첨단 및 방위산업물품으로 관세감면대상이 되는 품목으로 정밀전자산업, 전자제어 및 고도정밀기계산업, 신소재산업, 정밀화학산업, 생물산업, 광산업, 항공기산업등 7개 업종의 190개 물품을 지정했다.

이에 의하면 재경원은 공장자동화물품으로 작년도 관세감면대상인 404개 품목중 160개는 재지정하고 169개는 규격을 변경해 지정했으며 83개를 신규로 지정, 총 412개를 금년도 관세감면대상으로 고시했다.

또 첨단 및 방위산업물품으로 작년도 관세감면

대상인 181개 품목중 118개를 재지정하고 72개를 신규로 지정, 총 190개를 관세감면대상으로 고시했다.

이같은 관세감면제도는 기업의 자동화를 통한 첨단기술분야의 기술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도의 관세감면율은 공장자동화물품, 첨단 및 방위산업물품 각각 20%이며 내년도('98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한편 재경원은 관세법 및 시행규칙도 개정, 관세감면제도를 일부 개선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과기처, 中企에 기술 무상양허

과학기술처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0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31개 대학 등에서 개발한 315개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양허하기로 했다.

과기처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과 연계해 지난 '9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4차에 걸쳐 483개 과제에 대해 525개 기업의 참여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냈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무상양허 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315개 대상 기술과제를 공고했다.

과기처는 특히 이 사업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출서류와 평가절차를 간소

화하고 지원조건을 확대·보완했다.

이에 따라 대상 기술과제의 무상양허에 따른 정부부담 비율이 현행 50%에서 80%(20%는 기업부담)로 확대되고 신청기간도 사업기간 내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기간도 1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과제는 기간을 연장·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 기술개발 10개년계획 마련

통상산업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10년간 에너지기술개발에 총 2조472억원을 투입, 2006년 기준 최종에너지 사용량의 10%를 절감하고 총 에너지의 2%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하며,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의 청정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기술개발에 의한 에너지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에너지절약기술, 대체에너지기술, 청정 에너지기술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

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에너지기술 개발 10개년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기술 개발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을 부문별로 보면 에너지절약기술 개발에 8,932억원, 대체에너지기술개발에 5,270억원, 청정에너지기술개발에 4,620억원, 실용화촉진기술개발에 1,245억원, 하부구조 확충사업에 405억원 등이다.